

2003년 지방재정 일반회계를 적용하여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규모는 총 예산 56조 7,754억원 중 상기에서 제시한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먼저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은 15조 6,241억원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은 20조 1,967억원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비부담분 약 7조 9,000억원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예산의 49%가 된다. 또한 채무상환은 8,063억원 1.4%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자지불을 제외한다. 그리고 예비비등 법정외경비는 9조 1,377억원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경비도 전액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 11조 106억원중 계속비사업과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약 30%는 제외한다. 이상의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결국 2003년도 자치단체의 신규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은 약 2조원으로 일반회계 순계기준 대비 약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적인 수치이고 자치단체의 재정력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신규재정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은 이 보다도 상당수준 낮게 나타날 것이다.

6. 투자사업비 및 투자가용재원

분석 종합

이상 본고에서 분석한 투자사업비 및 투자가용재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명목상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인 사업예산 비율로서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보조사업비와 자치단체 자체사업비를 합계한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투자사업비이다. 따라서 명목상 투자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투자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보조사업비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까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자치단체의 투자사업비로서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실질적 투자사업비 분석결과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3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의 합계인 명목상 투자사업비중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사업비 개념으로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 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은 확충되어야 하는 전제라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사업비의 확충이 중요하며 참여정부의 향후 지방재정 확충 논의시 이 실질적 투자사업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